

# 물가 둔화에도 3월 실질임금 2.6% ↓ ...다시 '마이너스' 전환

### 고용부,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3월 임금 1.6%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감소 4월 종사자 37만명 ↑ ...증가폭은 다소 축소

고물가 여파를 딛고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근로자 실질임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5월 31일 발표한 '올해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세전)은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383만7000원)보다 6만원

(1.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413만원으로 8만원(2.0%), 임시·일용직은 176만8000원으로 2만3000원(1.3%)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47만5000원으로 4만9000원(1.4%), 300인 이상은 596만3000원으로 5만2000원(0.9%)

늘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3월 실질임금은 35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361만8000원)보다 9만3000원(2.6%) 감소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6만원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9만원 넘게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고물가 여파에 지난해 4월(-2.0%)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던 실질임금은 지난 2월 0.7%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2월 4.8%→3월 4.2%→4월 3.7%까지 내려왔다. 올해 1~3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1.6%)이 2020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도 실질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3월 실질임금이 2.6% 하락하면서 1~3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387만6000원)보다 2.7%(10만3000원) 감소했다.  
한편 올해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40만9000명)보다 37만4000명(1.9%)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올해 들어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내려오며 다소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이 4만4000명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숙박·음식점 종사자는 9만4000명 늘어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8만8000명(1.8%), 임시·일용직이 8만8000명(4.7%) 증가했다. 반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2000명(0.2%) 감소했다.  
변용일 기자

## “우리가 업계 최저” 편의점 커피 60원까지 나왔다

### 커피 성수기 여름 맞아 '초저가' 경쟁



편의점이 커피 성수기 여름을 맞아 '초저가' 경쟁에 나선다.  
편의점업계는 고물가로 저렴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자 반값 커피, 대폭 할인 전 등을 선보이며 연일 물가 잡기에 한창인데, 이번엔 날씨가 더운 여름철 주로 찾는 '편의점 커피'를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선보이기 위한 초저가 경쟁에 치열하다.  
GS25는 6월 한 달간 정가 21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지 사이즈) 상품을 할인에 할인을 더해 60원에 판매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GS25의 자체 커피 브랜드 카페25는 오전 7~10시까지 타임세일로 300원 할인, 카카오페이 페이백 1000원 할인, 우리동네 GS 클럽 할인 530원, 통신사 최대 10% 할인 210원을 차감해 최종 가격 60원에 아메리

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  
GS25에 앞서 5월 한 달간 단돈 200원에 커피를 제공했던 CU는 관련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CU는 자체 커피 브랜드 GET아이스아메리카노(XL) 상품을 타임세일 구분 없이 하루종일 500원 할인해 정가 2000원에서 15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30% 할인(600원), 커피 구독쿠폰(30%, 600원), 통신사 할인(100원)을 적용하면 최대 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GS25와 CU가 초저가 커피 경쟁에 나서자 세븐일레븐도 가세했다. 세븐일레븐은 6월 한 달간 카카오페이머니로 자체 커피 브랜드 '세븐카페' 아이스 구매 시 50% 현장할인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머니 반값 할인 시 세븐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 기준 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머니 기본 할인에 SKT 멤버십, 세븐앱 구독권 30% 추가 할인 적용이 가능해 최저 580원에 구매 가능하다.  
커피뿐 아니라 먹거리를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 초저가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CU는 지난달 파트로 치즈피자 '피자득템(2900원)'을 출시한 데 이어 '김치볶음밥득템'을 1900원에 출시하며 초저가 콘셉트의 '득템 시리즈'를 확대하고 있다. 또 10년 전 가격 콘셉트로 선보인 1000원 짜리 '서민막걸리'와 400원 아이스크림 '400바'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GS25는 지난달 정가 4500~4900원인 '해자로운 집밥' 도시락 두 종을 350~470원대 가격에 팔았는데 3만개 한정 판매 상품이 금세 품어진 등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쿠키와 함께 7인치 피자 두 판이 들어간 반값 피자 콘셉트의 '빠피자(6500원)'를 선보였다.  
이마트24는 밥과 볶음김치로 구성된 '월더밥'을 1500원에 내놨다. 월더밥은 원하시는 라면이나 반찬을 더해 먹을 수 있는 밥이라는 뜻으로 이마트24가 주력으로 선보인 초가성비 상품이다.  
서선욱 기자



## 삼성전자, 에너지 고효율 가전 판매 행사

삼성전자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을 더 큰 혜택으로 만나는 '삼성 절전가전 페스티벌'을 1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가전뿐 아니라 TV 포함 총 10개 품목·90개 모델을 더 큰 혜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모델 또는 'AI 절약 모드'를 지원하는 특별 패키지 모델을 2품목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모델별 최대 50만 원 상당의 혜택(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QLED TV 55형 제품은 90만원대로 한정 판매한다.  
삼성 절전가전은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해준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로 소비전력 절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로 추가 절약 가능 ▲AI 절약모드로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냉방 효율이 최대

20% 더 높고, 무풍 모드를 사용할 경우 맥스(MAX)풍 대비 최대 90%까지 소비전력이 절약된다.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25kg)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 기준 대비 최대 30% 높고,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는 최대 22% 더 높다.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 관리도 편리할 뿐 아니라 에너지 추가 절감도 가능하다. 'AI 절약모드'는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줄여줘 에너지를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최신 절전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도 실시한다.  
비스포크 냉장고 1등급 전 모델을 구매하고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며, 삼성 65형 QLED 이상 TV를 구매하고 구형 TV를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증정한다.  
최이슬 기자

## 1분기 창업 33만3372개... '부동산 침체 영향' 4.4% 감소

### 중기부 '2023년 1~3월 창업기업동향' 발표

부동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33만3372개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2023년 1~3월(누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창업기업수는 33만337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5360개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창업이 전년 대비 3만1872개(47.9%) 대폭 감소한 것이 1분기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6512개(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부동산업 창업은 3만4601개로 전체 창업 가운데 10.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창업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부동산업 창업 수와 전체창업 중 비중은 2020년 20만5122개(44.3%)에서 2021년 7만8749개(21.8%), 2022년 6만6473개(19.1%)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1분기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25.6% ↑) 등은 전년 대비 신규창업 수가 증가했다.  
도소매업(7.9% ↑), 정보통신업(13.4% ↑), 전기·가스·공기(49.4% ↑), 사업시설관리(7.6% ↑), 교육서비스업(9.0% ↑), 예술·스포츠·여가업(14.3% ↑), 개인서비스업(6.0% ↑) 등도 증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수출감소,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제조업(14.0% ↓), 건설업(9.4% ↓) 등에서 전년 대비 창업이 감소했다.  
이 밖에 부동산업(47.9% ↓), 농·임·어업 및 광업(6.4% ↓), 수도·하수·폐기(4.8% ↓), 운수 및 창고업(13.5% ↓), 금융 및 보험업(36.5% ↓), 전문·과학·기술(10.7% ↓), 보건·사회복지(12.4% ↓) 등도 창업이 줄어들었다.  
1분기 기술기반 창업은 6만2299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0.2%(100개) ↓)했다. 창업기업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슬비 기자

## 작아진 주거공간에 맞춰...신세계까사, '캄포 미니' 출시

### 캄포 슬림 대비 폭·가로 길이 20cm 줄어

신세계까사가 온라인 전용 신제품 '캄포 미니'를 출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캄포 소파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10만개 판매를 기록한 까사미어의 베스트셀러다. 신세계까사는 지난 2019년 캄포 출시 이후 다변화되는 가족 형태와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소재와 유닛 등에 변화를 준 신제품을 연이어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소규모 가족 형태 증가, 주거 공간 소형화 등의 추세에 따라 컴팩트한 사이즈의 '캄포 미니'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캄포 미니는 캄포 슬림 대비 폭과 가로 길이를 약 20cm 줄인 크기로 제작됐다.  
뉴스



## 홈플러스, 주류 '이지픽업' 서비스 인기

시행 한 달을 맞은 홈플러스 주류 '이지픽업' 서비스 이용 고객 중 3040세대 고객 비중이 70%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편의성을 내세운 '이지픽업'은 홈플러스 앱에서 주문한 후 고객이 정한 날짜와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직접 받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주류 이지픽업 서비스를 선보였다.  
3040세대 고객을 유인한 이지픽업 서비스는 판매량 기준으로 와인, 위스키, 리큐르 순으로 인기를 끌었고, 특히 적포도주, 프리미엄 위스키 품목의 활약이 돋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10시, 오후 1~3시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픽업을 이용하면 점포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소위 핫한 상품도 간편하게 구매



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고 아마자키 12년이 3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에 6월에는 로얄샬루트 하이엔드 한정판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한편 서비스 대상 품목은 와인·위스키·리큐르·증류주 등 300여 종이고, 픽업할 수 있는 홈플러스 매장은 총 110여 곳이다.  
뉴스